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❻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다



▶한줄 요약
잡초나 해충은 인간에게 해로운 식물이나 곤충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박멸할 잡초나 해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흑백을 나누는 이분법의 논리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다양성 인정하면 화엄세계 열린다



잡초 · 해충, 박멸 대상으로 인식
전형적인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
흑백 나누는 이분법 논리에 폐해
다름 인정해야 세상 평화로워진다

박멸해야 할 잡초, 해충은 없다

보통 '잡초'란 '이름 없는 풀', '이름을 모르는 풀'이라는 외에 '쓸모없는 풀', '소용없는 풀'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잡초'라고 부른다. 여기서 '쓸데없다, 소용없다'는 말은 '인간'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것이라 생각해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잡초'에는 항상 '제거'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잡'이라는 접두어는 다양하게 쓰인다. 인간에게 필요 없는 소소한 것은 모두 '잡'이라고 붙인다. 여기서 '잡'의 기준은 누구일까? '사람'이다. 이롭고 해로운 것,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의 기준은 '인간'인 것이다.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은 악이며 나쁜 것으로 모두 없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들에 핀 이름없는 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인간에게 존재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판단받아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야하는가? 인간은 누구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며 이로운 것은 '익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충은 '박멸'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다. 익충과 해충을 구분하는 기준도 '인간'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생존하거나 절멸 당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과연 해충은 해충약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존재인가? 잡초는 제초제로 완전히 제거해야할 존재인가? 모든 식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촘촘히 얽혀 서로가 서로는 존재하게 만들며 상호의존하는 연기적 존재이다. 인간의 '이로움'과 '해로움'의 판단 넘어있는 대상들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피해일지 모르지만 생태계 내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존재들인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종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 인간만이 기준이 돼 모든 생명들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고 지구상에 유일한 주인인양 행세하며 생물을 죽이고 살리는 여탈권을 갖는 존재라는 오만이 바로 지구적 위기를 만든 망념의 시작된다. 이것을 보통 '인간중심적 사고', '인간중심성'이라고 표현하며 "탈생물적 교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잡초란 없다. 모든 풀은 인간의 필요성을 판단, 그 이전의 존재들이다. 어떠한 가치판단을 뛰어넘어 생태계 내에서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다. '해충'이나 '익충'이라는 인간중심적 편견과 관념이 모든 식물과 생물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종하게 만든 근본 인식인 것이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한 생명을 해충으로 규정하는 순간, 죽여 없애야 한다는 생각, 즉 '박멸'로 연결된다. 그래서 씨를 말려 죽이는 제초제, 해충약, 세균박멸을 위한 약을 개발한다. 어쩌면 서구 의학의 역사는 세균의 박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에서는 해충이 박멸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당시에는 해로왔을지 모르지만 전체 생태계를 넓게 보면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며 오히려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말한다.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생명은 박멸한다고 그리 쉽게 박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 제초제나 약으로 물론 대부분 죽지만, 죽지 않으려는 생명의 본능은 기어코 살아 종족을 이어간다. 작은 세균이나 생애주기가 짧은 생명들의 소수는 내성을 확보하며 열악한 상황을 견디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도록 진화하여 살아남게 된다. 결국 내성이 생긴 이들 생명은 웬만한 농약이나 제초제로도 죽지 않게 되어 결국 더욱 강한 해충약,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도록 진화한다.

구분하고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모깃불을 놔서 모기를 쫓았다. 모기약으로 박멸하려는 지금과는 다르다. 또한 귀신도 굿을 해서 '쫓는다'고 표현했다.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천도하고 달래서 나에게 접근하지 않게 쫓는 것이다. 박멸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들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쫓는다"는 것은 내 가까이 오지 않게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드라큘라와 같은 서양의 귀신은 마늘이나 십자가로 그들을 맥을 못 추게 한 뒤에 가슴에 말뚝을 박아 죽인다. 천사와 악마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서양의 세계관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은 악마이며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멸종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생명세계는 인간중심으로 그렇게 둘로 쉽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국가, 조직, 단체까지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 사람 또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여 '천사'와 '악마'로 규정한다. 그래서 악마를 처단하고 사탄을 죽여야만 좋은 세계,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나쁜 국가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대표되는 구분하고 나누는 세계관이 사단의 원인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모든 것을 내편과 남의 편으로 구분하고 대결과 경쟁, 전투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승리와 패배의 관계로 만든다. 교육이든 인간관계이든 조직이든 '이기는' 데만 몰두할 뿐이다. 상대를 제압하여, 결국 자신의 주도권로 승리해야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 '좋고 나쁜 것이란 없다'는 가르침이다. 실제 생명은 '좋고 싫음, 이익과 해로움'이라는 인간의 집단적 주관에 의해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나누고 가르며 구분하는 반자연적 행위를 저질러왔고, 그러한 자연인식이 대립과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결국 생명을 죽이고 인간과 인간의 경쟁으로 확대됐으며 타인종과 타국에 대한 박멸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돼지 · 소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생각

보통 '돼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미련하고 더럽다'이다. 소는 아마도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생각, 여우는 '교활하다'는 이미지, 뱀을 '사악'하며, 늑대는 '음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련하다. 우직하고 성실하다. 교활하다. 사악하다. 음흉하다'고 누가 생각하는 것일까? '인간'이다. 사람들의 집단적 관념, 편견이다. 그들은 더럽고 미련하게 "사람에게만 보일뿐"이다. 소의 실제 성격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 저 너머에 있다. 그처럼 실제가 아닌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착각하여 동물과 식물, 곤충과 벌레에 대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갖는다. 이로운 동물, 해로운 동물, 더러운 동물, 징그러운 동물로 분별해 이들 생명들을 몰살시켜 멸종과 종다양성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곤충과 지네는 다리가 많아서, 뱀은 다리가 없어서 징그러워하고 혐오한다. 혐오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대상을 없애고 싶어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잔혹하게 죽게 한다. 그들이 독이 있어 인간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들은 '조심해야 할 동물'이지 '나쁜 동물'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일수 없다. 그들이 독을 품고 있는 것은 인간을 일부러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주인이라는 우월적 생각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현재 지구의 허파이자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인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는 더욱 증가하게 하여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아마존의 그 엄청난 벌채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수천만종의 식물과 곤충, 동물들이 하루에도 수십종씩 멸종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사람에게 발견되거나 학술적으로 등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들 생명들은 수십억 년 간 이뤄진 생명 진화의 마지막 산물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도 되기 전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흑백의 세계서 컬러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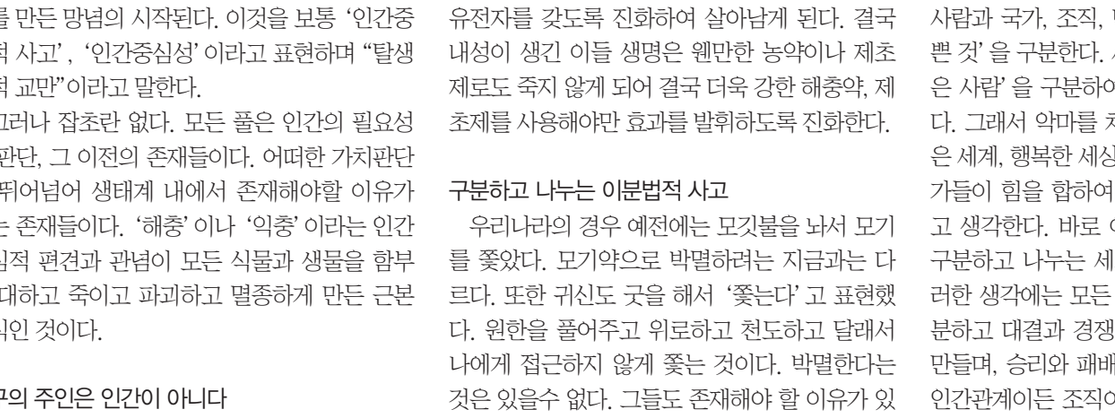
결국 '좋은 것', '나쁜 것', '천사와 악마',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가치들이 자연과 생명을 파괴했고, 인간사회도 가르나 나눠 경쟁하고 대립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를 만들었다. 모두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산업사회의 경쟁과 발전을 추동했지만, 인간과 인간의 갈등과 전쟁, 자연의 파괴와 생명의 살상을 통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인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살생의 의미는 인간과 동물을 자기중심으로 비하하고 구분하고 살육하며 분별하는 대상이 아니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돼야할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분법의 사회에서는 나와 같지 않은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고, '나와 같아지는 것 평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아지게 만들려고 싸운다.

어리석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흑과 백의 이분법의 사회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실제의 세계는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실제 100%의 흑과 100%의 백은 존재할까? 사람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60:40 또는 30:70 등 다양하게 시시각각 바뀌며 존재하지 않을까? 모든 세계(사람)는 회색이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더욱 분명한 실제는 다양한 컬러의 세계이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것은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나와 같아져야 한다는 욕망 때문이다. 나와 같아질 필요 없이 '다름'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창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이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밭의 풍요로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화장세계인 것이다. 그런 깨우침만이 이 위기의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